

2010.11.22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11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“2010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○ 조사대상 표본수

- 전체 6,808개 표본구역(논벼 6,188개, 밭벼 620개)

○ '10년 쌀 생산량은 429.5만톤으로 전년보다 12.6% 감소

- 재배면적 : ('09)924천ha → ('10)892천ha(△3.5%)
-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 : ('09)534 → ('10)483kg(△9.6%)
- 총 생산량 : ('09)491.6만톤 → ('10)429.5만톤(△12.6%)

<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>



□ 주요 조사결과

○ 금년 쌀 생산량은 429.5만톤으로 전년보다 62.1만톤(12.6%), 평년보다 16.0만톤(3.6%) 각각 감소

- '10년 벼 재배면적은 892천ha로 전년의 924천ha보다 32천ha(3.5%) 감소하였으며,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도 감소(9.6%)하여 전체 생산량이 감소

○ 단위면적(10a)당 쌀 생산량은 483kg으로 전년보다 51kg(9.6%) 감소

- 10a당 생산량 : (평년)501kg, ('08)520→('09)534→('10)483kg

-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감소 사유

- 생육초기(5월상순~6월상순) 저온현상으로 이삭수 감소
 - ※ 포기당 유효 이삭수 : ('08) 18.7 → ('09) 19.6 → ('10) 18.6개
- 출수 및 개화기부터 등숙기(8월 중순~10월 하순)까지의 강우량 증가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낱알의 충실도가 떨어짐.
 - ※ 강우량 : ('08) 260.4 → ('09) 221.1 → ('10) 600.6mm
 - ※ 일조시간 : ('08) 462.2 → ('09) 516.6 → ('10) 412.3시간
- 8~9월 태풍으로 인한 도복(벼 쓰러짐) 피해가 증가하였고,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한 병충해 피해도 증가
 - ※ 피해구역 비율 : ('08) 9.6 → ('09) 11.8 → ('10) 29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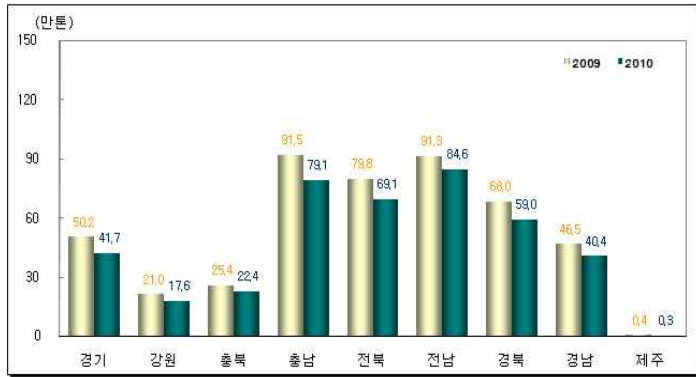
□ 지역별 조사 결과

○ 도별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이 가장 큰 전남이 84.6만톤으로 가장 많고 충남(79.1만톤), 전북(69.1만톤)순으로 나타났음.

-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경기도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6.9%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강원(△15.9%), 충남(△13.6%) 순으로 나타남.

- 단위면적(10a)당 생산량은 전북 515kg, 경북 507kg, 충남 505kg순임.

<전년대비 도별 생산량 비교>



※ 시·도별 쌀 생산량(증량기준) 자료는 부록 참고.

부록

시·도별 쌀 생산량(증량기준)
-논벼 + 밭벼-

	재배 면적			생산량		
	'09	'10	증감률	'09	'10	증감률
	ha		%	톤		%
전국	924,471	892,074	△3.5	4,916,080	4,295,413	△12.6
서울	286	267	△6.6	1,371	1,161	△15.3
부산	4,112	3,644	△11.4	20,084	16,944	△15.6
대구	3,479	3,218	△7.5	19,152	15,615	△18.5
인천	13,256	12,590	△5.0	62,221	54,197	△12.9
광주	6,581	6,223	△5.4	31,891	28,507	△10.6
대전	1,837	1,628	△11.4	9,467	7,862	△17.0
울산	6,498	6,365	△2.0	31,180	28,722	△7.9
경기	98,973	95,970	△3.0	501,939	417,293	△16.9
강원	40,540	38,863	△4.1	209,559	176,156	△15.9
충북	48,327	46,826	△3.1	254,056	223,622	△12.0
충남	161,160	156,589	△2.8	914,946	790,919	△13.6
전북	138,631	134,355	△3.1	797,850	691,057	△13.4
전남	187,533	183,804	△2.0	913,092	846,035	△7.3
경북	122,616	116,596	△4.9	680,334	590,301	△13.2
경남	89,309	84,017	△5.9	464,919	404,128	△13.1
제주	1,333	1,119	△16.1	4,018	2,895	△27.9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한·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**

※ 본 자료는 지난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한·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기본방향

- 한·EU FTA 대책은 **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 개선**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
- 품목별로 축산 선진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분석, 관세감축에 의한 가격차를 **축사시설현대화, 질병근절**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, 품질·위생 수준 제고
- **가공산업** 활성화, 가공원료유 지원, 학교급식 및 수출 확대 등 수입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적정생산기반 유지
- 경쟁력 제고 방안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**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** 지원

□ 주요 내용

1. 양돈산업

가. 생산성 향상

-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**축사시설 현대화사업** 지원 확대
 - 지원대상('09~'20) 확대 : (당초) 1.2천호 → (확대) 1.5
 - 모돈(어미돼지) 전문농장(50개소) 육성 신규 지원('10~)
- '14년까지 **돼지열병 청정화** 추진
 - 돼지열병 백신 접종 시기에 자돈폐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, 소모성질환

백신(씨코백신) 한시적 지원('10~'13년)

- 청정화 확인단계에서 야외바이러스 유입여부 확인을 위해 생독 백신을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으로 전환('11~'12년)
- 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('11~)
- 농가별 **맞춤형 질병컨설팅**, 상시 예찰, 농가 교육 등 강화
 - 소모성질환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: 320농가/년 → 350
 - 각도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 농장에서 도축장까지의 질병검사 시료를 보관·관리하는 혈액뱅크 설치, 역학조사, 컨설팅에 활용
 - 가축질병 예찰 전담요원 시범 운영, 전국 축산농가에 대해 주 1회 질병 예찰 및 방역관련 정책 홍보 등 실시
 - 선진국 수준의 실습형 양돈 전문 교육기관 설립·운영
- 종돈장 전문화·청정화 등을 통한 **우수·무병 종돈** 공급
 -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('10~)
 - 전문 원종돈장(GGP) 육성 지원('10~)
 - 종돈장 질병관리 강화
 - 종돈장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전능력(육질, 산자수, 사료요구율, 기후 적합성 등)이 우수한 종돈 선발
 - 돼지 인공수정센터(AI센터) 규모화 및 권역화 지원

나. 분뇨처리 기반 구축

- 2020년까지 **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** 확충, 돼지분뇨 발생량(1,700만톤)의 50% 처리
 - 가축분뇨 퇴·액비 품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개별처리시설을 공동자원화 시설로 전환
 - 3천두 미만 농가(56%)는 공동·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, 3천두 이상 기업형 농장(46%)은 자체적으로 개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

- '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대비, 11년까지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31개 시·군(696호)에 분뇨처리 시설 집중 투자
-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에 대비,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 확대 설치

○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기반 구축 확대

- 공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**액비유통센터** 설치·운영
- 농·축협, 영농조합 등 **자연순환농업** 조직체를 평가하여 액비살포비, 운영자금 차등 지원(11년~)
- 경종·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지속 확대

○ (R&D) 대학·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**축산환경자원화추진협의체** 구성, 가축분뇨 실용화기술 개발·보급 등 추진

- 가축분뇨 수분 증발 및 유기물 분해 가속화 기술, 분뇨처리장 악취 제어·관리 기술, 맞춤형 기능성 퇴·액비 생산기술

○ 퇴·액비 품질향상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

-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음식간재물 등의 소화액을 퇴·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개정('10.3월)
- 주거지로부터 액비살포 거리제한(200m → 100), 액비살포 의무면적(640㎡/패지 → 300) 완화
- 액비살포 지역 확대 : 농경지?초지 → 골프장, 임야 추가
- 액비 품질향상 등을 위해 비료성분, 부숙도, 악취 검사 등을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품질검사제 도입(12년)

다. 가공산업 활성화

○ (R&D)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,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위해 도축·가공·유통 관련 다양한 기술 개발 추진

- 한국식품연구원, 국립축산과학원, 가공업체, 대학교수 등으로 **육가공 전문가 위원회**를 구성·운영('11~)

-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
- 가공·포장기계 국산화를 제고 기술, 유통 중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재 및 냉동·해동 기술 개발

○ (전문가 양성) 육가공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진청 또는 한국식품연구원에 **실습형 전문 교육프로그램** 신설·운영

- 식육판매점 등에서 고품질의 다양한 햄, 소시지, 치즈 등을 즉석 제조·판매하는 식육가공판매장 육성, 새로운 수요 창출

○ (제도 개선) 축산물 가공품 분할판매 허용 등

- 가공제품 분할 판매 허용 및 햄, 치즈 등 비가열 가공제품에 대한 미생물(대장균, 황색포도상구균 등) 불검출 기준 완화
- 유통현황 등을 반영한 소·돼지고기 표준 규격집 제작·배포

○ 국내산 소시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인조 케이싱(소시지 껍질)을 천연 케이싱(돼지 내장 등)으로 전환 추진

- 국내산 공급이 부족한 천연 케이싱(500여톤)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
 - 국내산 소시지의 95%는 인조 케이싱(관세 8%)으로 제조
 - 국내산 천연 케이싱은 전량 순대 및 곱창으로 소비

2. 낙농산업

가. 수급 안정

○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

- 국내 원유 생산량의 10%(약 20만톤)를 저가의 가공원료유로 공급('11년~), 유제품 수입 대체효과 도모
- 직관쿼터제(농가의 원유 가공·판매 허용) 도입, 낙농체험 관광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**목장형 유가공산업** 활성화

-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지원 대상 확대

○ 대학교수, 한국식품연구원, 국립축산과학원, 유가공협회 등으로 **유가공**

전문가 위원회를 구성, 다양한 기술개발 추진('11~)

-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유제품 개발
-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성 균주 선발 및 제품개발

나. 생산성 향상

- 조사료 생산 확대, 개량, 사양관리 개선,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20% 절감
- 옥수수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수요 확대
 -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(3백만원/ha)과 연계, 간척지 재배 등을 통해 **조사료 재배면적 확대** : ('09) 245천ha → ('15) 370
- 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청정육종농가 육성을 통해 국산 정액의 시장점유율 확대 : ('09) 50% → ('17) 70
- 젖소 육성우(수정 전단계) 생산·공급 전문농장 육성 및 자동 급이·착유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
- 도시근교 낙농가 이전 지원을 위한 **중소규모 낙농단지** 조성
 -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
 -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회사, 영농조합법인, 농축협 참여 유도

3. 양계산업

가. 생산성 향상

- '16년까지 **난계대전염병, 뉴캐슬병 근절**을 통해 생산성 향상
 - 종계·부화장, 삼계용 씨알농장(600개소)에 대해 연 2회 일제조사
 - 검사질병 대상 확대 : 추백리, 가금티프스 → 마이코플라즈마(MG, MS), 전염성 빈혈, 뇌척수염,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
 - 검사결과 양성발생 시 계군 이동제한, 종계사용금지, 부화 및 농가공급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(방역관리요령 개정 11년)

-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

- 종계·부화장에서 병아리 공급시 계통보증서 발급 의무화('10.10.22)
- 종계·부화장별 고유번호 부여하고, 병아리가 사육되는 축사별로 병아리를 생산한 종계·부화장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

○ 전문 종계장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병아리 공급 확대

-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, 우수 종계장(육성사 포함)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('11~)
- 전문 원종계장(GPS) 시설현대화 지원('11~)
- 종계 능력검정소 청정지역으로 이전('12~'13) 및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 추진('12~'20, 축산과학원)

○ 대형닭(2.5kg 이상) 생산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

- 암수를 분리하여 암컷은 현행 출하시기에 출하(38일, 1.5kg), 수컷은 사육 기간을 연장하여 대형닭 생산(47일, 2.5kg이상)
-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, 지열 난방시스템 등 개발·보급

나. 위생·안전

○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활성화

-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**동물복지형(자연방사 등)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**('11년),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
 -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('10.8월), 시범평가('10.10~12월)
- 축사환경 평가기준,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농장 HACCP 기준, 무항생제·유기 축산물 인증 기준 보완

○ 위생·안전성 제고를 위한 **도계시설 현대화** 지원('11~)

- 교차오염 방지, 신선도 유지(2℃이하), 품미개선 등을 위해 도계시설 냉각 시스템 개선 : 냉수 처리 → 냉기 처리
- 자동화 포장시설(벌크진공, 개별) 설치 지원(융자 70%, 3%, 3/7)

4. 안육우산업

- 한우산업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유통혁신 추진
 - 기초·광역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번식·비육우 생산성 향상 및 공동출하 활성화 도모
 - 시군 단위 한우사업단과 지역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하여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 신규 추진('10년 15개소 추진 후 확대)
- 육우자조금 설치('09.10)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확대
 - 육우 전문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, 군납물량 확대(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로 대체)
 - 육우 군납 물량 : ('08) 5g/1인/일 → ('09) 8g → ('10) 9g

5. 유통구조 개선

- 생산자(조합)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·유통 전문업체 육성
 - 생산자 조직, 소비자 유통업체와 연계, 도축·가공·검사·배송·판매·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,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
 - 물류시설비(보조 30%, 용자 50%), 초기 운영자금(3%, 3년 일시상환) 지원
- 위생·안전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**도축장 구조조정** 추진
 - ('09년) 99개소 → ('15년) 36개소
- 품질 향상,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등을 위해 **등급제 개선**
 - 돼지고기 등급 축소(3등급, D등급 폐지), 육질등급별 규격등급 범위 설정, 삼겹살 두께 및 근내지방도 등 등급판정항목 보완
 - 육질등급의 변별력을 확보하고, 규격등급이 거래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 냉도체 판정 단계적 확대
- 축산물 수출 기반 구축

- '14년까지 돼지고기 열처리공장(수출작업장) 시설현대화 지원, 저지방 부위 가공제품 수출 확대

○ 둔갑판매 방지 등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

-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
 -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→ 배달용 치킨, 오리고기 추가('10.8.11~)
-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진위 여부 확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 기관 확대

6. R&D 강화

- 농림수산물분야 R&D 투자 확대
- 신규 수요 창출,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,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축산분야 R&D 지원체계 개편
 - 대학교수, 국책연구기관, 전문가, 가공업체, 생산자단체 등으로 (가칭) 미래 축산포럼 구성·운영
 - 기술개발과 축산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, 보다 체계적인 R&D 평가 시스템 구축, 투자의 효율성 제고
 - 품목별, 분야별 연구 추진 실적 분석·평가 및 향후 국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방향 설정 및 장기 로드맵 작성
-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 시 국과위에 농림수산물 품 전문위원회 설치 추진

7. 제도 개선

○ 세계 지원 추진

- 축산업자·농업인 등 **영농상속공제액** 상향 조정 : 2억원 → 5억원
 -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10억원까지 비과세
-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**축산기자재 10개 품목**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추가(현재 12개)

· 대상품목(10개) : 인공수정 주입기, 인공수정 주입용기, 정액 회석제, 축산용 인큐베이터, 출하돈 선별기,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, 축산용 냉방기기(쿨링패드), 축산용 환기팬 및 팬 콘트롤러, 축산용 워터컵, 바닥재(트라이바)

- '11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: (현행) 40년 → 20년

· 가축 배설물에 따른 부식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반영

○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- 양돈장(종돈장 포함), 종계·부화장 **이력관리시스템** 구축
- 가축분뇨 자원화율 제고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 가능지역 확대 (골프장, 임야 추가) 및 가축분뇨 액비 품질검사제 도입 등
- 소비자 기호변화 등을 반영한 **축산물 등급제** 개선
-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, 수의사 처방제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
- 오리고기, 배달용 치킨 **음식점 원산지 표시** 의무화('10.8~)
- 가축계열화사업 제도개선 및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 추진
- 원유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 쿼터제 도입,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등